

‘아우토 5000’ 노사 협력 월 5000마르크 임금에 3500명 채용

친환경자동차도시 ‘광주형 일자리’로 열자

〈중〉 독일·미국 선진사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광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고용절벽 시대를 맞은 한국 사회 전 구성원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은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매우 중요한 의제인 만큼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수준인 적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사 관계 재설정, 월·하청 임금 격차 해소, 근로조건 향상, 숙련된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이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그동안 “실체가 없다” “실현 가능성이 적다”라는 일부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독일 폴크스바겐의 ‘아우토(AUTO) 5000’과 GM의 새턴(Saturn)의 성공 사례를 비추

도시 실업문제 해소 주도 GM 새턴 노사 공동경영 생산성·품질향상 큰 성과

봤을 때 ‘광주형 일자리’도 향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아우토 5000’의 경우, 1990년 후반 독일의 높은 실업률과 자동차 생산량 및 고용 감소 등으로 고용 불안에 직면한 기업과 노동조합, 정부가 머리를 맞대 만들어낸 해결책이었다.

폴크스 바겐 본사 공장이 있는 볼프스부르크시는 인구 12만명 중 5만명이 공장 협력업체에서 근무할 정도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1990년 동독과의 통일 등으로 독일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볼프스부르크시의 실업률은 17%나 되면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폴크스바겐은 공장 해외 이전을 추진했고, 지역 경제가 붕괴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회사 측은 급속노조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는 대신, 독립법인을 만들어 월 5000마르크(연봉 기준 약 3500만~40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실업자

5000명을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놔다.

이 제안은 즉각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급속노조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협상은 시작됐다.

아우토 5000 논의의 시작이었다. 이후 노사간 협상을 거쳐 폴크스바겐은 실제 볼프스부르크시에서 실업자 3500명을 채용하고 생산라인을 증설했다. 노동자들은 6개월간의 교육 기간을 거쳐 미니밴 투란, 도시형 스포츠실용차(SUV) 티구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아우토 5000 생산시설은 기존 폴크스바겐 공장 내부에 증설됐지만, 노동자를 채용한 것은 폴크스바겐이 아닌 독립법인 아우토 5000이었다.

한 공장 안에 두 개의 법인과 두 개의 임금체계가 공존한 셈이다. 아우토 5000은 노동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된 사업장평의회 등을 통해 직장 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노사 협치 모델을 정착시켰다.

이로 인해 ‘아우토 5000’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는데 노사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윈윈(win-win)개임을 위한 전략적 협상(임금 감소와 고용창출)을 통해 성공적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형 차량만 생산해왔던 미국 GM은

1970년대 일본 차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소형 차종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새로운 합작법인인 새턴(Saturn)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최고이사결정 기구에 노조위원장도 참여하고, 공장의 각 부문마다 노사공동경영과 협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등장한 광주시장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현의 방안으로 ‘제3지대 3법인’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노사관계나 임금체계와는 독립된 영역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노사와 지자체,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공동경영 시스템을 운영해보자는 것이다. 또한, 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시도 상징적으로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이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지역민들의 응집력을 결집시켜 사회통합적이고, 연대지향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광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친환경자동차·광주형일자리 한국사회 변화 물결 만들 것”

윤장현 시장 기자회견

윤장현 광주시장은 11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의 국가사업 확정과 관련, “친환경 자동차로 향하는 정책적 흐름,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 등 두 가지 변화를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과정에 정부와 현대기아차의 정책이 전기·수소차로 다가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사업을 끌고 갈 동력인 광주형 일자리야말로 사회적 격차 해소,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고려할 의제라는 정치권, 재계의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히말라야 등정 경험이 있는 그는 “히말라야 정상은 갑자기 다가서는 게 아니라 캠프 원, 투, 쓰리를 설정하면서 조건을 갖춰간 뒤에 오를 수 있다”면서 “에타 통과로 캠프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시의 예산, 시스템 등 전력을 확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1980년 5월 광주가 정치

민주화를 이끌었다면 이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결정 과정, 노동시간·형태를 토론하면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선보여야 한다”며 “광주만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광주에서 출발한 일이 한국사회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도록 관심, 체력, 격려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광주시와 투자협약한 중국 조이퉁, 투자사를 조울 중인 인도 마힌드라 등 완성차 업체 유치 전망을 소개하고 “적정임금을 제시해 제조업이 국내에 리턴하는 조건을 만들겠다”며 “미세먼지 문제, 폴크스바겐 사태 등으로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온 좋게도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현대기아차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적정임금의 일자리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근로자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산단의 주거, 교육, 복지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안착을 지시했다. /최권열기자 cki@

금품살포·밀어주기·정당 갈등... 더 혼탁해진 양당체제 감투싸움

광주·전남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분석해보니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단 선거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각 의회 안팎에선 의장단 미리 뽑기설이 나오다가 하반, 금품살포 의혹과 의원 골프 합숙설까지 제기되는 등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파열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각 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이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되는 등 여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다수당의 밀실 합의 추대와 그에 따른 정당 간 갈등, 의원끼리 야합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신임 의장단이 향후 선거 후유증을 어떻게 복합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는 후반기 임기 시작 11일이 지나도록 아직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정략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더민주 측은 의석수에 따라 의장단을 나누는 국회식 배분을, 국민의당 후보 측은 자율 투표방식을 요구하는 등 의장

선출방식을 놓고 이견 차이를 보이면서다.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측이 골프 합숙회동을 가졌다는 설도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국민의당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더민주에서 내용이 일고 있다. 더민주 소속 의원 수가 33명으로 국민의당 의원 22명보다 11명이 더 많은데도, 후보가 낙선한 탓이다.

여수시의회에선 동료 의원 간 금품 수수를 통한 표 매수설이 불거지면서 해당 의원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불명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고흥에서도 금품이 살포됐다는 설이 나돌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목포에선 의장 후보로 나선 한 후보가 국회의원 개입설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 같이 광역·기초의회에서 진흙탕 감투싸움이 이어지는 이유는 일당 독재체제에서 양당체제로 재편되면서 당대당 대결이 되면서다. 특히 일반 평의원과 달리 공

더민주·국민의당 대립

광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일정도 못잡고 파행

직사회나 지역사회에서 자치단체장에 베푸는 임금을 행사할 수 있는 점도 주된 이유 중 하나다.

현재 각 지역에선 일부 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구태의 모습에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온갖 비민주적 일탈이 빚어지면서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의장단 선거를 놓고 깊어진 당대당 간, 의원간의 갈등의 골이 쉽게 메워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광역·기초의회가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을 봉합하는 등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행기자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광주

	의장	부의장
동구	박대현(국)	홍기월(국)
서구	오광교(더)	오광록(더)
북구	김상훈(더)	신수정(더)
광산구	조승유(국)	박삼용(새)

◆전남

전남도	임명규(국)	권욱(국), 이장석(더)
목포	조성옥(국)	성혜리(국)
여수	박정재(국)	이선호(국)
순천	임종기(더)	주윤식(더)
나주	김판근(더)	장행준(더)
화순	강승팔(더)	최기천(더)
광양	송재현(더)	김성희(더)
곡성	이만수(더)	유남숙(더)
구례	박영근(더)	이승욱(더)
담양	김기성(더)	이규현(더)
함평	이윤행(더)	정영임(더)
영광	강필규(더)	심기도(더)
장성	김재환(더)	심기동(더)
고흥	김의규(더)	송우섭(더)
보성	강복수(무)	김영춘(무)
장흥	김복실(국)	왕윤채(국)
강진	김상윤(국)	김명희(더)
해남	박주환(더)	이대배(더)
완도	박종연(더)	서울윤(더)
진도	김인정(더)	박규례(더)
영암	박영배(국)	박영주(더)
무안	이동진(더)	김원중(더)
신안	정광호(더)	이중주(국)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TALK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친구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친구 맺
- 우측 상단의 친구찾기 버튼
- ID검색에서 아이디 입력 또는 QR코드 스캔

이달의 추천 여행 도시! 북경 & 고북수진

- 동반아동 비자피 포함 (최대 1명)
- 과일바구니 제공 (룸 당 제공)
- 면세점 모바일 선불카드 2만원 권 제공 (룸 당 제공)

* 예약일: 7월 1일 ~ 7월 31일 / 출발일: ~ 9월 20일

- 보조배터리 제공 (룸 당 제공)
- P&G 생활용품 세트 제공 (룸 당 제공)

유명한 식당 특식 + 미식여행

하나Pack 클래식

[무안출발] 북경 4일

CBPF01_OZY 59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 호텔: 룡팔레스 호텔 또는 미정 (5성급)
- 요일: 매주 화요일
- 항공: 아시아나 항공(OZ)
- 특전: 베이징서커스(\$20상당)/발마사지(\$20상당)/자장면 요리체험 포함
- 특식: 총 5회(이화스프링 향주요리, 오리구이 자장면, 샤브샤브, 광동요리)

호텔 업그레이드 + 단체비자 포함

하나Pack 클래식

[무안출발] 북경/고북수진 4일, 5일

CBPF02_OZG 74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 호텔: 수진 대주점 1박/룡팔레스 호텔 또는 미정 (5성급)
- 요일: 매주 화/금요일
- 항공: 아시아나 항공(OZ)
- 특전: 리무진 버스 이용/베이징서커스(\$20상당)/발마사지(\$20상당) 포함
- 특식: 총 3회 (오리구이, 샤브샤브, 한식)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안전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기보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려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성형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여행비)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형에 대한 자유형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신청에 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여하에 따라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지를 받습니다. ■관광사양서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중호텔 이상 2인 1실/고동면 항공/버스/해리(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연내번호 0번) ■명일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형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형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일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를 참조해 주세. 해외 여행 단거별 국가 지정 현황 ①여행 유의 ②여행 자제 ③환수 권고 ④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